

철저한 안전관리로 新 경북시대 열어갈 도청 건립 현장 운영의 기본 방침은 오직 '안전'

대우건설 경북도청 현장

민족 문화의 본산이자 산업큰대화의 주역 경상북도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대구를 벗어나 선비정신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수도 경북 안동시에 새로운 도청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북도는 그간 문제가 됐던 행정서비스 수요·공급주체 간의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물론 도정의 굳건한 지역 중심점을 구축하게 되어 약화됐던 토민의 긍지로 뜨거워질 수 있게 된다. 실로 경북도가 우리나라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런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대우건설'이다. 대우건설 경북도청 현장은 새로운 경북도청을 전국에서 손꼽히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시공에 임하고 있다.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경북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이곳 현장을 찾아가봤다. 취재 연술기 기자 skyway@safety.or.kr

맞춤형 안전관리가 재해예방 비법

현재 이곳 현장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각종 기계·전기공사 등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들 작업에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수반된다. 우선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외부 비계 등의 설치·해체 시를 비롯해 슬라브 단부에서의 작업 시 추락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 기계·전기공사는 대부분 고소작업대(시저형 렌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협착·추락재해의 위험이 늘 상존한다. 더불어 용접작업은 화재의 위험이 상당하고, 토목공사는 여러 건설장비가 쓰이다 보니 협착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다양한 위험을 감안해 이곳 현장은 맞춤형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마다 추락 방지망을 설치

해놓은 것은 물론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해 놓았다. 이와 함께 고소작업자에 대해서는 안전벨트 착용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용접불꽃 방지틀을 렌탈에 설치해놓는 한편 현장 내에 가설소화전을 기본으로 소화기도 충분히 배치해 놓았다. 이밖에 장비 협착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장비 후방카메라 설치, 신호수 배치, 장비 운행속도 제한(10km) 등도 실시하고 있다.

기본에 충실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이곳 안전관리의 특징 중 하나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매우 계획적인 안전관리가 펼쳐진다는 것이다. 먼저 이곳은 매일 일일안전공정회의, 안전체조, 동별 안전점검(2회, 전 직원), 건설장비 점검 등을 빼놓지 않고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월별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보건협의체와 지역 안전관리자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분기별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역점을 두는 한편 원·하청 상생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안전컨설팅 점검, 취약시기 점검(해빙기, 장마철), 무재해 100일 작전(연말), 타워크레인 자율점검 등 다양한 점검을 빈틈없이 실시해 조금의 위험요소도 남겨두지 않고 있다.

감성안전에 더한 복지안전

이곳 현장은 근로자들의 마음을 보듬는 감성안전에 더해 근로자들의 편익을 우선하는



복지안전을 실천하고 있다. 청결하고 쾌적한 근로자 휴게실, 샤워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근로자가 원하는 식단을 메뉴에 반영할 정도로 근로자들을 배려

하고 있다. 특히 수시로 근로자 식당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건강검진 실시, 혈압계 배치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이곳 현장의 향후 계획은 앞으로 진행될 지붕 기와공사와 관련해 기와공사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실시하는 것이다. 기와공사에 대한 경험이 적다보니 상당한 위험이 뒤따를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은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기와공사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기와작업장 관리책임자 상주 배치 등 면밀한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처럼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는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펼쳐지고 있는 이상, 이곳 현장의 목표인 '재해율 제로, 무재해 200만 시간 달성'은 분명히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mini interview



정지화 현장소장

건설산업의 이미지 변신,
'안전'에 달렸다

국가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건설산업이 최근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재해의 온상이자 3D산업의 대표격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젊은 층이 건설 분야로의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안전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다발하니 후진적 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서둘러 우리 건설인들이 이미지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모든 현장소장들의 기본원칙은 '안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원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일심단결해서 건설산업을 안전사고가 없는 클린산업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하여 아전사령관을 꿈꾸는 도전적인 청년들이 다시 날개를 펼치는 세상을 만들어봅시다.



공경운 안전과장

안전은 개인이 아닌
모두가 할 때 완성

안전은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안전은 시공사의 의지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안전관리자가 있다고 해도, 시공

사의 안전관리체계가 매우 우수하다고 해도 현장의 모든 근로자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공사, 협력사, 근로자는 각자의 역할을 인지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안전시설 및 설비의 설치, 보호구의 지급 등 원청의 완벽한 지원체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철저히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재해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자분들은 주변의 모든 시설이나 장비에서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남이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는 자율성이 사고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